

투명성과 촉감이 우수한 극세 나일론 필라멘트 섬유

‘MIRACOSMO®SROOE™’

TORAY社は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질감과 매끄러운 촉감을 실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극세 나일론 필라멘트 섬유 ‘MIRACOSMO®SROOE™’를 출시하였다. TORAY社は 이미 MIRACOSMO®SROOE™를 스타킹 용도로 전개하고 있으며, MIRACOSMO®SROOE™를 사용한 스타킹이 ATSUGI(주), GUNZE(주), Fukuske(주)에서 2015년 봄·여름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향후에는 MIRACOSMO®SROOE™의 매끈한 촉감을 살려, 란제리, 이너웨어, 아우터 등의 용도로도 전개할 예정이다. TORAY社の MIRACOSMO®SROOE™ 판매 목표는 2015년도에 36톤/년이며, 2020년도에는 120톤/년이다.



<그림> MIRACOSMO®SROOE™(좌) 및 기존 원사(우)를 사용한 스타킹

지금까지 스타킹 시장은 레깅스나 토렐카(고리 레깅스) 등의 아이템 보급, 맨 다리 패션의 유행 그리고 사무실이나 관혼상제 이외에 스타킹을 신는 기회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타투 스타킹"의 유행 등으로 스타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착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투명성이 있는 스타킹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MIRACOSMO®SROOE™는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스타킹 시장을 목표로 패션 트렌드와 착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투명성과 매끄러움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MIRACOSMO®SROOE™는 TORAY社가 전개하고 있는 나일론사인 MIRACOSMO®의 고분자를 사용한 섬도 6 dtex 이하의 하이멀티사이다. MIRACOSMO®는 강력, 투명도 및 발색성이 우수하며, 스타킹, 이너웨어, 얇은 스포츠 웨어 등으로 폭넓게 전개되어 왔다.

최근 TORAY社는 고분자 설계기술로 고분자의 성능을 극대화시키고, 고강도화 기술 및 방사시의 냉각 기술을 융합하여 단사 변수 1.2 dtex이면서도 강도를 갖춘 극세섬유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매끄러운 촉감과 투명성을 실현하였다.

♠ TORAY Homepage News (2015년 2월 26일)